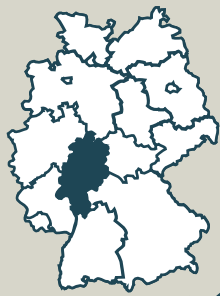


투자자 정보 나침반 **한국**

2016 년 안내정보



유럽 제 1의
경제지역



헤센 주에서 투자하기



금융수요

헤센에서의 직접투자



법적 안정성



비즈니스 플랜



경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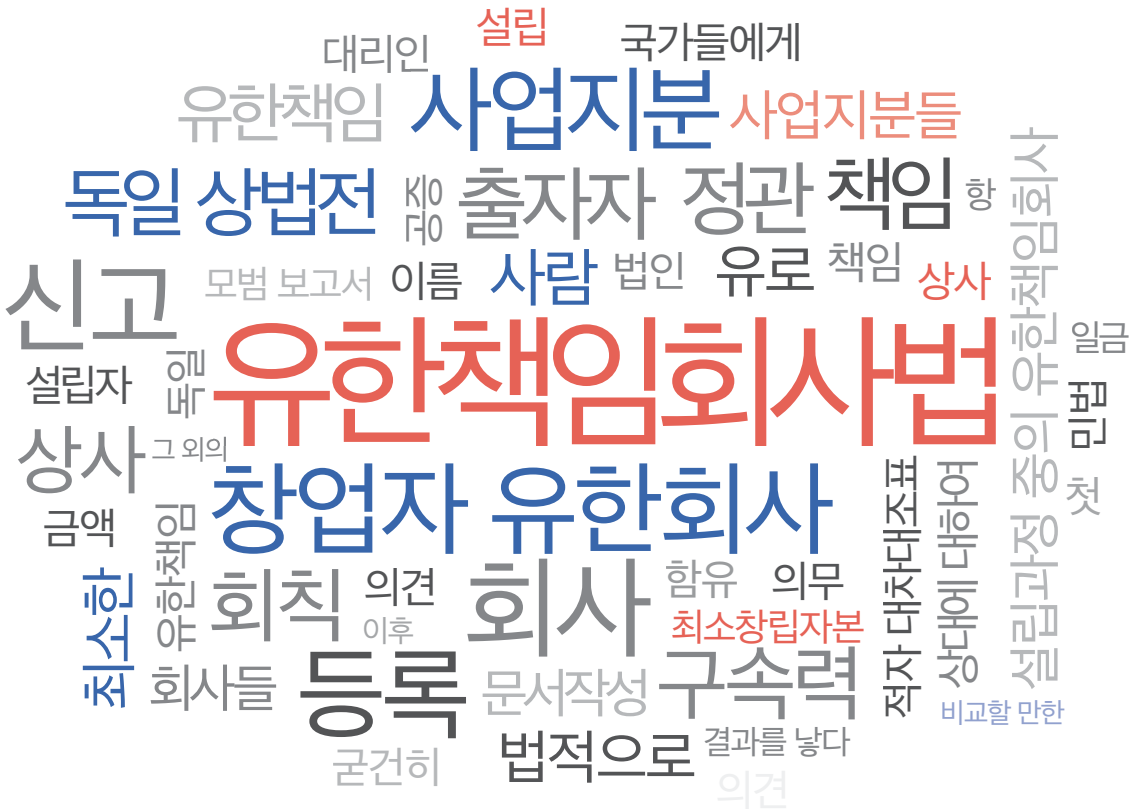


기회 및 리스크

● 헤센 주에서 성공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10 단계 과정



헤센 주에서 성공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10 단계 과정



● 헤센은 독일 및 유럽에서 국제적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사업장 소로 손꼽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투자나 자회사 설립을 결정하시기 전에 먼저 경제 구 헤센의 믿음만한 팩트와 통계숫자 그리고 헤센의 여러가지 사업부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헤센 주는 국제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창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즉 탁월한 인프라, 최고의 전문인력, 큰 시장기회,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입니다.

1 단계: 상담자에게 문의하기

가장 첫 단계의 문의부터 창립의 시점까지 보다 신속하고 비관료주의적 지원을 받고자 하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헤센 Trade & Invest 의 상담자에게 연락을 취하십시오. 우리는 헤센에 투자를 원하거나 헤센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국제 투자자들을 위한 중앙 상담기관입니다.

우리의 3 지역매니저먼트는 100여개 지방자치 경제지원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지역과

근교에서 국제 투자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모든 단계를 거쳐 헤센에 정착하기까지 항상 동행합니다.

2 단계: 독일 사업여행을 위한 비자

많은 비유럽연합국 기업이 및 시민들이 독일로 업무여행을 하기 위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몇몇 나라에게는 예외조항이 적용됩니다.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미국 시민들은 비자 없이도 독일에 입국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까지 독일에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비자의무를 면제받는 한국의 기업들은 미리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는 (그리고 90일을 넘는 체류허가의 경우에도) 무비자 입국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단계: 회사법인

국적이거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독일에서는 누구나 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는 특별한 투자입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인에 대하여 독일 내 기업의 최소지분

을 얼마나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제일 적합한 기업의 형태로 합자회사 혹은 합명회사를 선택하거나 혹은 독일에 지사를 정착시킴으로써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업정책의 절차는 복잡하지 않고 명확하게 규정된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업의 법적형태를 선택하는 경우, 좀 더 큰 규모의 기업을 위해 확립된 옵션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도 통상 합자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옵션입니다. 독일에서는 합자회사의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주요형태:

- 유한책임회사 (GmbH)
- 창업자 유한회사 (이른바 "Mini GmbH")
- 주식회사 (AG)
- 주식합자회사 (KGaA)

독일의 유한책임회사는 (GmbH) 가장 널리 분포된 기업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높은 유



연성과 비교적 적은 의무부담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GmbH의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모든 출자금의 ¼, 단 총 최소창립자본의 절반 (즉 12500유로)를 출자하고 그 증빙서류가 준비되면 됩니다. (최소)창립자본 중에 출자되지 않은 일부가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의 출자는 공동투자자들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남습니다. 나머지 (절반) 출자금은 실무부(회사)의 요청이나 투자자들의 회의로 결정이 난 시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물 출자는 감정을 거쳐 회사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완급되어야 합니다.

4 단계: 기업 창립을 위해서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창립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은 그 회사의 설립주체가 자연인인지 혹은 법인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연인

- 신분증 혹은 여권
- 유한책임회사 (GmbH)를 위한 초기자본: 25000 유로 + 요금

법인

- 모회사의 사업자등록본 원본 및 공증본 역본
- 헤센에서 기업창립을 결정한 소유주(주주)의 회의결정, 미래의 회사 사장(실무자 대표) 임명사실 포함
- 유한책임회사를 위한 초기자본 (GmbH): 25000 유로 및 요금

모든 공동투자자들이 헤센으로 여행을 오지 않는 경우에는 새 회사의 법정자본금 인수를 위해 위탁을 받은 대표를 위한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GmbH 창립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창립자본은 25000유로입니다 (그리고 이는 금액이나 현물로 조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시점에는 적어도 최소창립자본의 절반 (즉 12500 유로)이 실제로 은행계좌에 지불되고 그 은행의 증빙서류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5 단계: 회사설립 지원 전문가

독일에서 기업을 창립하는 경우 우리의 상담자 팀이 여러분을 돕기는 하지만, 그것이 대부분 비용의무가 있는 추가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옵션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많은 경우에 유익합니다.

변호사

- 독일/헤센에서의 기업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전제조건 관련 상담
- 회사정관 초안
- 신뢰할만한 상호 찾기
- 실무자(대표)계약 초안작성
- 변호사 사무실을 임시 사업장으로 이용하기

세무상담자

- 세금법적 및 상거래법적 관련 상담
- 개시 대차대조표 작성
- 상담계약의 잠재적 협의

공증인 (Notar)

- 회사설립에 관한 공식적 문서작성
- 기업의 지역담당 사업자등기부(법원)에 사업자등록 신청

은행

- 기업을 위한 사업(회사)계좌 개설
- 설립자본금 예치

헤센 Trade & Invest의 전담 상담요원은 그 외의 측면들에 관한 물색과 선택에 있어서도 조언과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사상담원 / 인사중개인

인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인사서비스전문인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로 여러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직무분석 및 구인
- 인력심사 및 선택
- 면접 및 후보제안

유럽에서 가장 큰 한국인 주민공동체가 헤센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 7000명 한국 국적이인 주로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거주합니다. 한국인의 다수는 최근 몇 년 동안 독일의 체제 안으로 굳건히 통합되었습니다.

헤센 주에는 한국인 대학졸업생들, 그 중에서도 특히 (직업교육과 연계된) 이중 대학제 졸업자들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유럽 및 독일 인력 외에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단계: 사업공간 물색

독일에서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기업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헤센에는 사업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사무실
- 비즈니스 센터 내의 사무실
- 영업용 부동산/ 영업장
- 가정 내 사무실 (초기 첫 단계를 위한 옵션)

여러분의 상담요원은 해당지역 및 도시의 경제지원팀과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가장 적합한 사업장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헤센 주는 데이터뱅크를 통해 현지 정보시스템을 제공하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이용해 영업장용 토지나 공장부지를 스스로 물색할 수도 있습니다.



● 헤센 주
창립 담당자:
안드레아스 담라우
(Andreas Damrau)

Senior Manager & Investor Services
Hessen Trade & Invest GmbH
전화: +49 (0) 611 95017-8346
전자우편: andreas.damrau@htai.de

www.htai.de



7 단계: 회사 등록

회사의 사업장이 결정된 후, 새 독일 자본회사는 반드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고는 상인과 회사들을 위한 법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담고있으며, 모든 독일 기업에게 적용되는, 따라서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반드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해당 지방법원에서 실행되며 무료로 공개 열람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기업은 기업의 영업소가 있는 시의 상무국/질서행정국 (Gewerbeamt/Ordnungsamt)에도 신고되어야 합니다.

8 단계: 지원프로그램

헤센에서 기업이나 사무실을 열고 싶은 한국 기업가들은 특별한 경우에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전체 틀은 마련되어있지만, 언제나 개별적으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헤센 WIBank (헤센 경제 및 인프라뱅크)의 금융전문가 팀은 (www.wibank.de) 여러분에게 맞는 개별적 지원의 전제조건에 관한 안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팀과 연락을 취해드리겠습니다.

9 단계: 체류허가 및 영주권

비유럽연합국 기업인들이 독일 현지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직원의 자격을 얻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류허가 혹은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체류허가는 시간적으로 유한한 비자이고 영주권은 무기한 허가입니다.

영주권은 비유럽연합국의 시민이 적어도 5년 동안 체류허가증을 소유했던 후에 주어집니다. 체류허가나 영주권은 항상 하나의 특정한 목적 하에, 즉 통상 독일에서 독립적으로 생업을 영위하거나 혹은 고용이 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영주권은 통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여됩니다:

- 의도하는 사업활동에 대한 경제적 관심도 혹은 지역적 수요가 존재함
- 투자 프로젝트로부터 경제적 파생 결과가 기대될 때
- 계획하는 투자가 확실한 자본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을 때

이 기준들을 얼마나 충족하는지는 해당 외국신청이 매 신청 건마다 판단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준들을 따져주는 현지 투자지원 에이전시와 접촉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담당 도시행정의 외국신청은 다음과 같은 면을 고려합니다:
- 기본 사업아이디어의 수익성
- 투자자의 사업관련 경험
- 투자규모 및 자본의 처분성
- 헤센의 범지역적인 면과 관련한 혁신, 연구, 개발을 위한 기여도
- 지역 일자리와 (직원) 교육수준으로의 영향력

외국신청은 지역의 경제지원단체 및 예를 들어 산업 및 상거래소 혹은 수공업협회 등의 지역 사업장 및 경제협회들과 상의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5세를 넘은 신청인은 그 외에도 적당한 노후대책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단계: 회사업무 착수

헤센에서 회사의 업무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 마케팅 콘셉트의 개발과 실천 / 비즈니스 플랜
- 현지 전제조건에 따른 비즈니스플랜 적용 (예를 들면 첫 비즈니스 여행 내지 견학여행 후에)
- 구인
- 사업 섭외 내지 사업파트너 구하기
- 적당한 적재공간, 매력적인 전시회장, 개인주택 구하기
- 세관규정, 기술적 규정, 상거래규정에 관한 정보
- 전화 및 인터넷 설치
- 유럽 시장에 맞춘 마케팅 및 광고수단 콘셉트
- 사무실설비, 기계 등의 구매 혹은 임대
- 편지지 서식 및 명함 인쇄
-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구매 혹은 임대

더욱더 상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 www.invest-in-hessen.com
- www.htai.de
- www.standorte-in-hessen.de

Trade & Invest GmbH는 헤센 주의 투자 및 경제지원을 위한 에이전시로서 추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히 ICT, 전자산업, 생명공학기술, 의료기기, 환경및 나노기술, 금융서비스 등의 혁신적인 부문을 위해서 각 부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정착한 후에도 독일 및 유럽에서 최선의 네트를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책임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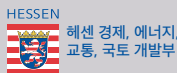
발행인 및 편집부:

Hessen Trade & Invest GmbH
책임자: 안드레아스 담라우 Andreas Damrau
주소: Konradinerallee 9, 65189 Wiesbaden, Germany
www.htai.de

디자인:

ansicht Kommunikationsagentur,
하이케 볼러 (Haïke Boller, 책임자),
징 뉘니쉬 (Jing Dünisch), www.ansicht.com

www.invest-in-hessen.com



HessenAgentur

HA Hessen Agentur GmbH



HESSEN

TRADE & INVEST